

개인 신용등급 '고무줄 산정'

평가모델·활용정보 등 기준 제각각

억울한 신용거래 피해자 양산 우려

직장인 박모(40)씨는 최근 사업에 투자할 목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권을 찾았다가 크게 당황했다.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무려 7등급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주택담보 대출금 1억여원을 빌린 뒤 매달 빠지지 않고 이자와 원금을 내고 있지만, 빠듯한 가계 형편 때문에 카드 대금을 2개월 연체한 것이 문제였다. 박씨는 사실상 저신용 등급에 해당해 큰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은행원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모(31)씨는 신용카드로 매달 100만~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연체 없이 갚아나가고 있다. 그런데 개인 신용등급이 A신용평가사에서는 1등급으로 평

가됐지만 B신용평가사에서는 5등급으로 무려 4등급이 차이가 났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 '신용등급'이 급등락하거나 신용평가사별로 다르게 산정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개인 신용평가사(CB)들의 '고무줄 신용등급 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용등급이 급락한 서민들이 고금리에 허덕이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용등급이 급변하거나 평가사마다 다른 것은 신용평가사들의 개인 신용등급 평가모델과 활용 정보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하

는 곳은 한국신용정보(한신정·NICE), 한국신용정보평가(한신정평가·KIS),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세 곳이다. 이들은 각 금융회사와 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대출·연체·조회기록 등의 정보를 받아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한다. 은행은 이를 기관이 매긴 신용등급을 토대로 대출액·이자를 결정,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3개사가 사용하는 신용등급 평가모델과 활용 정보가 서로 달라, 똑같은 사람의 신용등급도 기관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

실제 한신정과 한신정평가는 장기 연체와 대출, 보증 등의 기록을 주요 정보로 활용하고 있지만 개인의 카드 사용 실적은 정보로 활용하지 못했다. 반면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카드회사로부터 카드 사용 실적을 받아 신용등급으로는 차이가 나고 있다.

시민 강모(50)씨는 "서민들에게 개인신용등급은 자산과 다름 없다"며 "정부가 선의의 금융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현재 신용평가 시스템을 반드시 고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yna.co.kr

다는 점이다. 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꾸준한 이자상황, 카드상실 납무 등 우량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지난해 10월 신용평가법이 시행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국민연금, 전기요금,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실적과 같은 우량정보를 담당 기관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아직 평가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를 꺼리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잘못된 신용등급으로 신용거래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간 정보 공유 기반을 확대하고 현재 다양한 평가모델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강모(50)씨는 "서민들에게 개인신용등급은 자산과 다름 없다"며 "정부가 선의의 금융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현재 신용평가 시스템을 반드시 고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yna.co.kr

LH 토지·주택 미분양 24조 육박

광주·전남 미분양 아파트 222가구 424억대

사업 재조정 문제로 흥역을 치르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주택 미분양 규모가 2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 총부채(118조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 재조정과 더불어 미분양 부동산 처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LH에 따르면 7월 현재 LH의 토지·아파트 등 미매각 부동산 규모는 총 23조6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 등 미매각 토지 규모가 총 20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87%에 달했다. LH의 미매각 토지는 지난해 10월 초 통합공사 출범 초기 약 17조원 규모였으나 10개월 만

에 3조6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아파트가 지어질 공동주택용지 미분양분이 11조1000억여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상업용지 미분양분도 4조 원어치에 달했다.

아파트 미분양은 1만2000여가구, 총 3조800억여원 규모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양립1단지 75가구, 진월7단지 45 가구 등 총 222가구 424억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ju.co.kr

무역흑자 300억달러 육박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흑자가 300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29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월 무역흑자는 40억 달러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무역흑자가 189억4000만달러에 달한 만큼, 7월까지 누적 무역흑자만 230억달러를 넘어서는 쉘이다.

한 관계자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산업의 고른 선전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예상을 뛰어넘는 흑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연간 흑자가 300억달러를 넘어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770.88 (-2.59)
코스닥지수	482.56 (-4.19)
금리(국고채 3년)	3.80% (-0.06)
원·달러 환율	1,186.40원 (+2.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기아 '스포티지R' 친환경성 인정

SUV 첫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애심작 '스포티지R'(사진)과 현대차 투싼ix가 스포츠유트리티차량(SUV) 가운데 최초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해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

탄소성적표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해 제품의 생산·사용·폐기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CO₂)로 환산해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스포티지R의 탄소배출 총량은 약 22.9t(2만2850kgCO₂)으로 원·부자재 제조 14.1%, 생산 2.1%, 사용(12 만km 주행 기준) 83.7%, 폐기 단계 0.1%의 비율로 이산화탄소 배출되

/박정욱기자 jwpark@kwan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탑공인증개사

◎ 광천동신축상가임대 ◎

■ 건물 총 면적 : 1388㎡(420평)

■ 총별 건물 면적 : 413㎡(125평)

4층 : 148㎡(45평) ※9월말 준공예정

층 면적 권장업종 비고

1	181㎡ (55평)	약국, 미용실, 식육점 소매점, 마트, 청과점	제과점, 은행 입점확정
2	171㎡ (52평)	치과	입점확정
3	241㎡ (73평)	학원, 의원, 레스토랑	분할가능
4	413㎡ (125평)	의원(병원), 체육관 학원, 사무실	분할가능
	148㎡ (45평)	사무실	입점확정

· 광천동 대림 e편한세상(구 송원대학 정문)

신축상가로써 대림아파트 1096세대와 주변

기아자동차·주변세대 약 3,000세대가 활동하며

엘리베이터 설치와 양면도로 및 양쪽 출입기능

◎ 임대문의 ◎

☎ 062) 368-0789 / H.P 010-3602-4840

아담공인증개사

서광주역부근 자연녹지

■ 서구 벽진동 서광주역 인근 6,561㎡(1,985평), 3.3㎡당 52만원, 자동차관

レンタル 차고지 기타

할령 손물 비단기 가 전원주택(교현가능)

■ 학평 손물 비단기 가 전원주택(교현가능)

연면적 178㎡(53평), 2층, 교현 가능, 조망권 양호, 앞에 서해바다가 펼

쳐있음, 아파트와 교현기능 매매가 3억

쌍동동 나대지

■ 서구 쌍동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1,845㎡(558평) 제1종일반주거

지역 10m진입로로 평가 3.3㎡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 입지

■ 호남대(서봉)부근 자연녹지

■ 광산구 선일동 호남대앞 3,458㎡(1,046평) 3.3㎡당 110만원

지역 10m진입로로 평가 3.3㎡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 입지

첨단 보호봉위앞 자연녹지

■ 광산구 산월동 보호봉위앞 9,722㎡(2,941평) 3.3㎡당 60만원 자연녹지

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모임장소, 편의점, 주거지 등

무등산 전원주택지

■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 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

가 19,000만원, 조망권 관광

건물구함:(병원, 오방원, 리모델링 등)

광주시내 전지역, 연면적 1,000평이상.

☎ 062-233-2222 / 010-3616-8698

GG경매컨설팅(주)

▶ 아파트

서구

6동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108호

109호

110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115호

116호

117호

118호

119호

120호

121호

122호